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다

2. 돈의 힘을 알라!

Opening Talk

오프닝 토크



빌 클린턴, 말콤 턴불(호주 총리)을 비롯한 여러 유명 인사들은 로즈 장학 재단의 수혜자다. 이 재단의 설립자가 1902년 마흔아홉의 나이에 숨진 세실 로즈다. 그는 숨지면서 막대한 부를 교육계에 기부한 자선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대영제국의 제국주의자이자 거대 광산업자, 동시에 남아프리카 식민지 정치인이었다. 그는 하나님도 영국인일 것이라고 믿은 인종주의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을 낳은 인물이었다. 일부 남아공 출신 학생들은 “수탈자였던 로즈의 동상 존재 자체만으로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했다.

옥스퍼드대 오리엘 칼리지에서는 세실 로즈가 기부한 600만 파운드로 지은 건물 전면에 있는 그의 동상 부조를 놓고 ‘로즈는 내려와야 한다(Rhodes Must Fall)’는 운동이 벌어졌다. 철거 논의 과정에서 이 이슈는 옥스퍼드대 안팎에서 거대한 논쟁으로 변했고, 보수와 진보 성향 매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정적으로 오리엘 칼리지의 마음을 돌려세운 건 돈이었다. 논란이 가열되면서 동문들이 동상을 철거한다면 1억 파운드 이상의 기부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한 동문이 150만 파운드의 기부를 철회한 데 이어 또 다른 동문도 자신의 유언장에서 1억 파운드 기증 약속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오리엘 칼리지는 “세심한 고려 끝에 동상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고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Tip. 모든 질문은 한꺼번에 읽고, 각자 원하는 질문에만 답하게 해주세요.
질문은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주세요.
Biblical Point 나눔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 일터에서나 우리사회에서 위의 경우처럼 ‘돈의 힘’을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들은 사례가 있다면 나누어 보자.

- 돈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가 있다면 나누어 보자.

Biblical Point

바이블 포인트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끝이 없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돈의 부정적인 면

돈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1과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다루었다. 이 과에서는 돈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모데 전서 6장 7-10, 17-19절은 재물에 대해 좋은 관점을 제공한다.

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 부하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위의 말씀은 부한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만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인생관, 그때에 오는 허망하고 비참한 결과, 부가 주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 또한 부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좋은 가이드를 준다.

첫째, 우리가 많은 부를 소유한다 해도 그것을 누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끝이 없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부를 추구하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욕심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죄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구절은 크리스천은 절대 봉급인상이나 승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거나, 크리스천 사업가는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이유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음을 구별해야 한다. 돈을 더 얻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한다면, 돈 벌 목적에만 눈이 어두워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가르친다(잠 21:6).

돈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일터에서 성공하거나, 더 큰 이윤을 얻고자 소원하거나,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부한 자들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주의해야 한다. 잠언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경고한다(잠 28:11). 부가 주는 자족감, 성취감과 지위, 미래의 안정감은 자칫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위험함이 있다.

넷째, 재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불확실한(“정함이 없는”) 부유함’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한다. 물질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아야지, 물질 자체를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다섯째, 바울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 하는 너그럽고 의로운 부자가 되라고 가르친다. 가진 것을 무조건 다 주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선한 부자, 정의로운 부자가 되라는 것이다.

여섯째,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이다. 현세보다는 장래의 참된 생명을 위해 보물을 하늘 나라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 통한다.



돈에 대한 2가지 왜곡을 주의하라!

(1)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첫 번째 왜곡은 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표시이므로, 따라서 가난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의 극단적인 신앙표현이 '예수 믿어 부자 되라'는 메시지다. 물론 물질은 축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꼭 물질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예수님 + 많은 돈 = 축복ⁱⁱ

조금 더 실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더 왜곡된 공식을 적용한다.ⁱⁱⁱ

예수님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만) + 돈 (나의 탐욕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 완벽한 축복받은 신앙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위의 공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그만큼 돈의 유혹과 힘이 세다는 증거다. 어느 만큼 센가? 때로 물질적 축복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주 목적이 될 만큼 세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mammon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 6:24)



(2)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것인가?

두 번째 왜곡은 돈을 단순히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잘 다스리며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라고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이 결코 틀리지 않다. 그러기에 사도바울도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돈 관리의 1 단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2 단계로 넘어간다. 돈에 대해 중립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어두운 세력인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엡 6:12)이 뒤에서 돈을 활성화 시킬 때 돈이 엄청난 “힘(power)”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돈의 유혹에 휘말려 영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뜻밖에도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마 19:21)라고 말씀하셨다. 기억하는가!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을 떠났다. 그에게 물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였다. 이 경우 돈의 유혹은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엄청난 힘으로 작용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성경에는 돈에 대한 3번째 단계의 가르침이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mammon(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마 6:24)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mammon을 하나님과 경쟁 상대인 신으로 신격화 시키고 있음을 주목하라. mammon은 ‘부’를 뜻하는 아람어 단어다. 어원으로 보면 ‘믿는다’(mn)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mammon을 섬긴다는 것은 mammon을 ‘믿는다’는 것이며 거의 종교적 충성을 요구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mammon’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추구해 오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인 것이다. 그 만큼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돈을 섬기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 주는 힘이 된다. 마치 마약과 같다. 마약을 상대 안 할 때는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만, 일단 마약을 하기 시작하면 걸잡을 수 없이 우리를 지배하며 거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돈의 신학의 핵심은 돈이 하나님 나라의 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와 돈 사이의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돈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마틴 루터도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다”^{iv} 라고 말할 정도로 돈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험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포스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여질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는 도장을 찍어야겠다고 말한다.^v 그만큼 우리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돈을 잘 다스리면 유용하지만 돈에 끌려 다니기 시작하면 영혼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철학자 베이컨은 돈이 “최상의 종이로, 최악의 주인”이라고 일찍이 알려 주었다.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인가? 그렇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물질을 제공해 주셨기에 그 물질의 쓰임과 흐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의 분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기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눅 12:34)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돈에는 분명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돈은 마치 불과 같아서 꼭 필요하지만 자칫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바로 이 어두운 면 때문에 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느덧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우리는 돈의 신기루를 쫓아 그것이 행복과 인생의 참 의미를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인생의 참 의미를 다 놓치고 살게 될 것이다.



돈에 대한 웨슬리의 조언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자 메소디스트 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돈의 소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첫째, 우리 자신이 먹는 것과 옷 입는 것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둘째, 아내, 자녀, 집에 딸린 사람들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셋째,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만 돈을 써야 한다.

넷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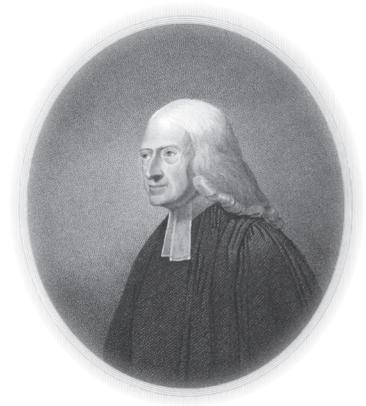
다섯째, 이웃에게(다른 사람에게) 상처주지 않고 열심히 벌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웃의 사업을 해치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슬리는 이웃을 삼키고 고용원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번 돈을 ‘피’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피가 아닌가? ... 피, 피가 거기에 있다. 기초와 마루바닥과 벽과 지붕에 온통 피로 물들어 있다”라고 설교했다.^{vi}

여섯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어야 한다. 그는 경제적 재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곱째, 종교적 체험뿐 아니라 성결한 삶을 강조한 웨슬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요일 2:16).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당신의 물질관, 재물관, 돈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비해야 한다



- 위의 글을 읽고 돈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앞서거나 돈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i TOW project, "1 Timothy: working for order in God's Household."

ii 척벤틀러, 「부의 뿌리」 박갑윤 옮김(생명의 말씀사, 2014),38.

iii Ibid., 38의 도식을 약간 변경함.

iv 리차드포스터, 「돈 섹스 권력」 김영호 옮김(도서출판 두란노, 2011),27.

v Ibid., 44

vi 김홍기, 「평신도를 위한 신학」 이화여자대학교 다락방 전도협회 말씀시리즈 2(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81ff.

FWIA Voice

요약정리



돈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일부입니다.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때론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나 mammon이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재물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돈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